

##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길

이냐시오가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 중의 하나는 영신수련의 일부인 「식별을 위한 규칙」이다. 그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느낌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려 주었다. 기도, 하느님과 더욱 친숙해짐,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에 대한 친밀한 지식이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는 요소들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악하거나 터무니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경계 사이에는 광범위한 가능성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학교, 경력, 직업, 신분, 인간관계, 중대한 책무와 같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와 목적,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다른 날로 미루지와 같은 비교적 작은 결정들도 매일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가치들이 경합할 때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는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식별하는가?

이냐시오 영성은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르쳐 준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냐시오는 이 도전에 실제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냐시오는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기 원한다.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원리와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사랑의 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선택은 이것이라야 한다. 하느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 날로 더욱 자라게 하고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을 더욱더 인도하는 것을 바라고 선택한다.”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단계이다.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모든 일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길인 것이다. 이 모든 중요한 선택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는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곤 한다. 우리가 내리는 첫 번째 선택 또는 결정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결정에 따르는 복잡함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방법은 분석적 접근이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선한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종이 한 장에 칸을 두 개 만들어 놓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면 친구의 생각을 물

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린 후, 하느님께 이 결정에 대한 축복을 청하며 봉헌하고 하느님께서 평화가 주는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나시오는 이런 결정 방식을 “세 번째 시기”의 선택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이 두 시기에서는 결정에 대한 확인이 지성적 추론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이 일으키는 다양한 움직임의 의미에 대한 식별을 통해 온다. 이것이 이나시오가 결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준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이것을 마음의 이치가 주는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기의 선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 무엇이 올바른지 안다. 이나시오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개의 본보기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며 다른 하나는 세리인 마태오의 부름받음이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데 대하여 (최소한 그 상황에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첫 번째 시기의 선택은 그리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삶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무런 의심 없이 알고 행했던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첫눈에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알아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은총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와 비슷하게 수도 성소나 사제 성소를 받기도 했을 것이다.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시기”의 선택은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완전히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식별이다. 이 경우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마음이 끌리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주는 은총을 받지도 않은 상태이다. 이나시오는 이럴 때 영의 내적 움직임에 주목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위로consolation”가 주는 느낌과 “실망desolation”이 주는 느낌들이 올바른 행동을 알려 주는 신호가 된다. 이나시오는 항상 위로와 실망이라는 말 앞에 영적spiritual이라는 말을 조심스레 넣는다. 그에게 영적 위로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며 영혼이 창조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때”의 경험을 뜻한다. 이나시오는 이것을 조금 더 간단히 묘사하는데, 위로란 믿음, 희망, 사랑을 키우는 모든 것이다. 영적 실망은 이와 정반대이다. 이나시오가 이 영적 실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은 영혼의 어두움, 혼란스러움, 비속하고 현세적인 것으로 기울어짐,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이나시오가 이러한 느낌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때는 그가 열렬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회심했던 초기 즉 자신의 느낌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번째 시기의 선택은 내가 하려는 결정 앞에서 단순히 “평화

로운 느낌”을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다. 영적 위로가 주는 느낌과 영적 실망이 주는 느낌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결정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자부심이 위로의 모습을 가장하여 다가올 수 있다. 때로 실망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적시에 다가오는 초조함이 될 수도 있다.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마지막에 나오는 「영의 식별을 위한 규칙」에서 식별에 관한 지침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이냐시오가 신뢰했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신뢰하는 것은 의외이기도 하고 다소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식별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은 이냐시오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냐시오의 관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스며드셨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상상력을 사용한 이냐시오식 관상으로 이 복음 장면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려 애쓴다.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의 맥락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 이 관계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다. 어떤 선택이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어떤 선택이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알려 줄 것이다.

따라서 이냐시오식 식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단지 합리적이기만 하거나 이성적이기만 한 것을 종종 넘어선다고 본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는 이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냐시오 영성이 우리를 “활동 중에 관상”하는 사람으로 키워 준다고들 말한다. 다소 역설적인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목표는 행동이고 식별은 수단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식별을 통하여 우리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깝게 하고,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긴밀히 일하도록 이끌어 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관상하는 것은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훈련이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시는지 배우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관상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결정을 하도록 이끈다.